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오천피 앞두고 뭉치돈 몰린다

코스피 사상 첫 4800 돌파
투자자 예약금 92.6조 기록
신용융자 28.7조 ‘역대 최고’

중견기업 과장인 이모(36)씨는 코스피 4400을 돌파한 지난 5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2300만원어치 샀다. 주가 상승률의 두 배 수익을 내는 상품이다. 그는 지난 16일 코스피가 4800선을 넘자 이를 모두 팔았다. 9일 만에 수익률은 18%. 이씨는 곧바로 지수 하락률의 두 배 수익을 내는 ‘곱버스’(인버스 2X) ETF로 갈아탔다. 그는 “주가 가 더 오르기 쉽지 않을 것 같아 하락에 베팅했다”며 “직장 동료 중에는 상승장에 ‘다걸기’하는 사람도 꽤 있다”고 말했다.

가정 주부인 윤모(41) 씨는 지난 16일 인버스ETF(상장지수펀드)에 650만원가량 투자했다. 인버스ETF는 지수가 내리면 오히려 수익이 나는 ‘청개구리 ETF’로 하락장에 대처하는 상품이다. 거꾸로 주가가 오르면 손해를 보는 구조다.



코스피 4840.74에 마감한 16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딜링룸. 코스닥 지수는 954.59에 거래를 마쳤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69.7원)보다 3.9원 오른 1473.6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뉴시스

동학개미들이 갈광질광하고 있다. 지금이 코스피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하락장에 베팅하는 ‘개미들’이 있는가 하면, 달리는 말(코스피 추가 상승)에 올라타는 개미들이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들어 개인은 코스피200 선물지수 하락률의 2배만큼 수익을 내는 ‘곱버스(인버스 레버리지)’ 상품인 ‘KODEX 200선물 인버스2X’를 3208억원어치 순매수했다. 개인 투자자 순매수액 5위다.

개인 코덱스 인버스 상품도 1330억원어치 샀다.

상승세가 한풀 꺾여도 안정적인 본배금을 받을 수 있는 커버드콜 ETF도 인기 상품으로 등극했다. 개인은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상품을 1532억원 규모로 순매수했다.

상승장에 투자하는 개미도 있다. 국내 증시를 추종하는 ‘코덱스 200’ 역시 2629억원(순매수 9위)의 개인 순매수를 기록했다.

개인 ‘TIGER 200’ ETF도 1178억원 순매수했다. TIGER 200 ETF는 국내 대표 지수인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으로,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로 구성했다. 한국 증시 전반의 흐름을 반영하는 대표 지수 ETF다. 이 상품은 순자산이 5조원을 웃돈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ETF운용본부장은 “국내 증시는 반도체 업황 개선과 글로벌 방위비 증액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코스피 5000시대를 앞두고 ‘TIGER 200 ETF’를 통해 반도체, 조선, 방산, 로봇 등 한국 증시를 이끄는 핵심 산업 전반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승장에서 ETF를 통한 박스권 투자에 나서는 셈이다. 추가 상승이 예상되는 투자자는 지수 상승세를 쫓는 레버리지 ETF를 사고, 상단이라고 판단한 개인은 하락장에 베팅하는 인버스ETF에 투자하는 식이다.

시장에서 개미들의 뭉치돈이 몰리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투자자 예약금은 92조60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달 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다시 92조원대로 올라서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말 87조8291억원과 비교하면 불과 보름여 만에 약 5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빚투’로 불리는 신용거래용자 잔고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15일 기준 28조7456억원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中 시장 뛰어드는 자산운용사, 현지기업과 전략적 협력

홍콩법인 설립하거나 협업 검토
반면 성과 못내 법인 정리하기도

중국 자산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만,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중국 현지화 전략은 엇갈리고 있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운용자산(AUM) 50조원 이상인 국내 자산운용사 7곳(미래에셋·삼성·신한·키움·한국투자·한화·KB·NH아문디) 중 가장 먼저 중국시장에 진출한 곳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03년 홍콩법인을 설립하며 국내 자산운용사 가운데 처음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했다. 미래에셋은 홍콩 시장 공략 경험을 발판삼아 현재는 미국, 캐나다, 인도, 일본, 호주 등 전 세계 16개 지역에서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총 운용자산은 약 500조 원대로 불어났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지난해 중국 차이나유니버설자산운용·홍콩법인(CUAM HK)과 홍콩 상장지수펀드(ETF) 시



ChatGPT로 생성한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자산운용사’ 관련 이미지.

장 공동 진출을 위한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 협력의 핵심은 ‘ETF 커넥트 제도’다. ETF 커넥트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와 홍콩증권선물위원회(SFC)가 추진한 제도로, 중국 본토와 홍콩에 상장된 지정 ETF간 교차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삼성자산운용 역시 홍콩 자산운용사인 CSOP자산운용과 협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운용사들이 중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가파른 성장과 맞물려 있다. 골드만삭스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중국지수가 올해 20% 상승할 것 전망했다.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상장된 대형주로 구성된 CSI300 지수 역시 전년 대비 12% 오른 5200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스탠더드 앤드푸어스(S&P)500 지수 상승률 전

망보다 높은 수준이다.

반면 KB자산운용은 지난해 중국 상해 현지 법인을, 한화자산운용은 2024년 12월에 중국 톈진에 설립했던 현지 법인을 정리한 바 있다. 한화자산운용은 글로벌 자산운용사 도약 차원에서 2016년 1000만 달러를 들여 중국 톈진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기회를 엿보던 한화자산운용은 중국 당국이 외국자본 단독 법인의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을 허용하자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 실제 4년 뒤인 2020년 한화자산운용은 “중국 자본시장에서 운용 전문가로의 입지를 다지겠다”고 하며 중국에서 사모펀드 운용 허가를 받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하고 팬데믹까지 터지면서 좀체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법인 청산에 들어갔다. 신한자산운용도 같은해 홍콩 법인 자산관리 사업 기능을 본사로 통합하면서 현지 법인 문을 닫았다.

/신하은 기자 godhe@

코스콤 상생파트너와 동반성장

‘Together+’ 통해 동행가치 실천

코스콤이 사회적 책임 실천과 동반 성장을 위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코스콤은 통합 상생 프로그램 ‘코스콤 Together+’를 통해 동반 성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코스콤 Together+’는 사업파트너와 지원파트너는 물론 지역사회 취약계층까지 모두 ‘상생파트너’로 정의하고, 단순한 협력이나 지원을 넘어 함께 성장하는 동행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진행된다.

코스콤은 도급업체 및 솔루션 제공업체, 서울·부산 지역 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사업파트너와 협력하며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동반 성장 체계를 구축해 왔다. 또한 시설관리·보안·환경미화·식당·어린이집 등 지원파트너와도 협력 관계를 이어가며 명절 선물 제공 등 실질적인 상생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4일에는 ‘Together+ 사업파트너 동행 미팅’을 개최했다. 연 1회 진행되는 본 행사는 업무 수행 기간, 무장에 실천 여부,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별된 사업파트너를 초청해 오찬과 함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반 성장의 계기를 마련했다.

더불어 지원파트너에 대한 존중과 배려 문화 확산에도 주력하고 있다. ‘파트너 감사데이’ 개최, 동계 근무복 및 외부 근무 물품 지원 등을 통해 근무 여건 개선에 나서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진이 직접 참여하는 지원금 전달식, 봉사활동,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꿈나무 장학생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CEO Letter’ 발행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발굴·운영할 계획이다. /신하은 기자

“상장임박 미끼”... 비상장주 IPO 사기 경고

금감원 Q&A

절차 진행 중이면 공시 조회 가능

“상장만 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받으신다면, 우선 투자사기 가능성부터 의심하셔야 합니다. 최근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 관련 소비자 피해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들 사기 유형은 과장된 사업 내용

과 허위 상장 정보를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하는 방식이 주를 이룹니다. 특히 상장이 실패할 경우 재매입을 통해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투자자의 기대 심리와 피해보상 심리를 동시에 자극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금융회사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 확인 전화가 올 경우 답변할 내용을 사전에 지시하는 등 치밀한 수법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장이 임박했다며 비상장주식 매수

를 권유받은 경우, 해당 기업의 공시 여부부터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라면 증권신고서 등 관련 공시 의무가 발생하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이나 한국거래소 IPO 현황을 통해 상장 예비심사 신청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자료가 전혀 조회되지 않는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1대1 채팅방,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투자 권유를 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불법업체와의 거래로 발생한 피해는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습니다. 금융

회사를 사칭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재무현황이나 사업 구조, 투자 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만큼, 제공되는 정보가 허위이거나 과장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투자자는 회사와 사업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인터넷 기사나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접하는 투자 정보 역시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허정윤 기자